

산업부 “12개 수출 유망분야 발굴 밀착지원해 수출플러스 달성할 것”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7곳 참여
농수산식품·ICT 등 분야 지원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 주력산업 외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품목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 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특히, 주력산업 외에 농수산식품·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콘텐츠·의약품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중 수출을 끌어올릴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 밀착지원 등 집중 지원을 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또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 현장 애로 신속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장성 황룡위탁영농법인 콩 생산단지

/전남도청

수입의존도 높은 전략 농산물 해외확보량 600만t까지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농식품부, 5개 품목 취급 社 선정
자원 개발면적도 50만ha 확대

정부가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략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해외확보량을 600만톤까지 늘린다. 해외농업자원 개발면적도 50만헥타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개 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2021년 208만톤에서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면적 또한 같은 기간 29만ha에서 50만ha로 확대한다.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 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

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등을 거점지역으로 추가 발굴한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여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 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한다.

비상사태 시 해외확보 농산물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해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와 협조하여 현지 농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영농기술을 해외농업 기업에게 전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지 진출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과 현지 법률·제도, 정책, 시장 현황, 성공사례·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우리금융연구소, 韓 경제성장률 전망 0.2%p 하향 조정

2분기엔 성장률 0.6%로 개선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p)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최근 중국 실물지표, 연구소 자체 경제전망모형(WQPM)의 추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에는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조정하는 등 대

외여건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연구소는 “수정 전망치(1.5%)는 지난달 IMF가 발표한 1.5%,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 하회를 예상한 것과 비슷하나 시장컨센서스(1.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분기 0.3%에 그쳤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6%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민간소비는 마스크 의무해제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회복, 5~6월 휴일 효과, 해외여행 수요에 힘입

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로 전환하겠으나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해 성장률이 지난해(2.6%)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전년 동기비 0.8%)에는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투자 축소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하반기(2.2%)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되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소진공, 소공인·전통시장과 ‘동행축제’ 함께한다

8개 O2O플랫폼서 기획전 등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수 진작을 위한 ‘동행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진공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 ▲O2O플랫폼 ▲소공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상권활성화구역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함께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진공은 O2O플랫폼 진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요기요, OK캐쉬백, K-딜(d eal), 지그재그, 숨고, 토마토:우리동

네장보기 등 8개 플랫폼과 협력해 동행 축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4720개사의 제품을 기획전, 할인쿠폰, 홍보·마케팅, 이벤트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한 253개사의 제품은 우체국쇼핑, 네이버, 롯데온,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동행축제기간 특별 기획전과 이벤트, 쿠폰,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과 연계한 행사도 진행한다.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300여명에게 에어팟, 치킨교환권, 커피교환권을 제공하고 신한카드 연계 소비지원금 행사를 통해 10% 청구할인 쿠폰 3만매, 50명을 추첨해 2만

포인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은 온라인 특별기획관과 특별할인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위메프, 11번가, 쿠팡,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53개사의 제품을 동행축제 집중기간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상권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칠성상권 등 전국 17곳 상권에 선 문화공연, 구매고객 대상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월 할인 구매 한도가 지류 100만원,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이 150만원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기획재정부·수출입銀 등
국내 기업 수주지원 목적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행사로 3일은 ADB 프로젝트 수주정보와 전략공유를, 4일은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3일 설명회에는 ADB관계자, 해외 발주처 및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인 등 150여명이 모여 해외 인프라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에 김미영 임명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김미영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3년 제1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1990년 동국대를 졸업했다. 1999년부터 금감



원에서 일한 김 부원장보는 은행준법감사국 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감독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을 거쳐

2021년 부원장보를 맡았다.

김 부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026년 5월까지다.

/나유리 기자